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의 관련성

장 분 자*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Relations Between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And Their Children's Oral Health Behavior

Bun Ja Ch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aegu Health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level and oral health behavior and their children's oral health behavior.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980 mothers and their children of fourth grade, fifth grade and sixth grade in an elementary school in Daegu city,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26 June to 30 June, 2006.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to frequency, One-Way ANOVA,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10.0 program.

Results : First, the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perception of benefit, seriousness and barrier.

Second, the mothers' oral health behavior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frequency of toothbrushing and visiting at dental care facility.

Third, the mothers' toothbrushing frequenc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toothbrushing frequency.

Fourth, the mother's visiting at dental care facilit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visiting at dental care facility.

Conclusion : The mothers' oral health knowledg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al health belief of their children and the mothers' oral health behavior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al health behavior of their children. Consequently it was necessary to encourage mothers and their children to take part in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oral health projects.

Key words : knowledge, behaviors, dental health, mothers, student

(2006년 10월 28일 접수, 12월 15일 채택)

* Corresponding author : Bun Ja Ch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Daegu Health, 7 Taejun-Dong Buk-Gu, Daegu 702-260, Korea
Tel : 82-53-636-8325 Fax : 82-53-320-1340 E-mail : j996026@yahoo.co.kr

1. 서 론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개인의 생활양식과 행태는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태변화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강복수, 1996).

구강보건행태는 구강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행위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로서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구강보건행태가 사람에 따라 다르거나 또는 비슷한 것은 사회, 경제, 문화, 심리적 상태 등 여러 환경이 개개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만희와 박인혜, 2000).

개인의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단히 많고 그 분류 또한 다양하나, 건강관련행위의 모형 및 이론에 따라 앤더슨 모형, 사회심리학적 모형, 통합모형으로 구분되어 분석된다. 이중 사회심리학적 모형은 건강관련행위를 사회심리학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모형으로써, 질병예방행위 분석에 주요한 점을 두는 건강신념 모형이 여기에 속한다(오윤배 등, 2000).

건강신념모형(Health Belief Model)은 건강한 개인이 어떻게 질병을 피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변수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 하나는 어느 특정 개인이 특정한 결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가치이며, 또 하나는 주어진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특정 개인의 믿음이다. 질환을 회피하고자 하는 예방적인 행동은 질병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고 있는 면역의 정도나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면역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크면 클수록 지각된 위협은 작아지고 그 결과 예방행동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심각성이 크고 면역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한 질환의 경우에는 지각된 위협도 커지고 예방행동이 증진된다. 한편, 예방행동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행동의 장애요인 등 행동유발요소들도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 타인의 권고, 의사와의 접촉, 가족 또는 친지의 상병사례 등도 개인의 예방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문창진, 1992).

치아우식증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의 부족, 잘못된 잇솔질 방법 및 잘못된 간식습관 등의 이유로 인해

초등학교 학령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 시행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이 초등학교 아동들이다(최순례 등, 2004). 그리고 아동의 구강건강관련행위가 아동의 의지와 태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친의 영향이 커다는 연구보고가 있어 왔다(류경 등, 2004; 최연희 등, 1999; 공만석 등, 1994; 김영희 등, 2002; 박득희와 이광희, 1994; 오윤배 등, 1994). 따라서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학교구강보건사업 및 모자구강보건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어머니의 특성 및 구강건강관련 지식, 행동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아동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어머니의 영향을 연구한 기존 연구로서 Al-Omiri & AL-Wahadni(2006)는 부모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자녀의 구강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Rajap et al(2002)은 자녀의 치과치료습관 또한 부모의 치과방문 습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에게 학교구강보건향상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류경 등(200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은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며, 최연희 등(1999)의 연구에서도 높은 구강보건지식과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을 행하는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구강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선주 등(2003)의 연구에서는 모친의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자녀의 유치우식증 발생과 초기우식증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지만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일치하였다. 모친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및 태도 · 행동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서는 공만석 등(1994)의 연구에서 모친의 지식수준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 중 감수성, 유익성, 중요성, 칫솔질 횟수는 관련이 있으며, 김영희 등(2002)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칫솔질 횟수 및 구강건강관련 행위들은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모자구강보건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윤배 등(1994)과 박득희와 이광희(1994)는 모친의 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신념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는 자녀의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대상으로 주목받았지만 아직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및 지식·행동과 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학교구강보건사업 및 모자구강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쓰이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S초등학교 한 곳을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 후 임의로 4학년, 5학년, 6학년의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채택하였다. 학생들은 4학년 216명, 5학년 210명, 6학년 242명으로 668명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668명으로서 전체 대상자수는 총 1,336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어머니의 동의서가 첨부된 설문지를 2006년 6월 26일에 일괄적으로 배부하여 개별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하였고, 일주일내에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는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어머니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합하였다. 이들이 응답한 질문지는 총 1,064부로 응답율은 80%이었으나 한 문항이상 미기재한 설문지 84부를 제외한 98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김숙진 등(2004)이 사용한 “부산 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과 구강건강상태간의 관계” 설문지와 최연희 등(1999)의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동과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이난희와 박인혜(2000)가 사용한 “또래집단의 사회적 강화가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효과”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기존의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은 불소에 관한 문항 7개와 치주질환에 관한 문항 7개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그리고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은 하루 칫솔질 횟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 횟수, 구강위생보조용품 등 총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구강보건지식의 각 문항에 대해 정답자는 1점, 오답자는 0점을 부여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수가 0-4개, 5-9개, 10-14개인 수준에 따라 각각 ‘저, 중, 고’ 3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총 14문항이 동일한 차원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인가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의 신뢰도계수는 0.66이었다.

학생의 구강건강신념은 이난희와 박인혜(2000)가 사용한 구강건강신념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감수성 7문항, 심각성 10문항, 유익성 13문항, 중요성 11문항, 장애도 6문항 등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리커트 4점 척도로 평점하고, 점수의 합을 개개 구성요소별로 점수화하였다. 설문문항의 Cronbach의 신뢰도계수는 0.81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학생의 구강보건신념과 대상자의 구강보건행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T-test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로는 4학년은 남학생 84명과 여학생 77명으로 총 161명과 그들의 어머니 161명이며, 5학년은 남학생 76명과 여학생 72명으로 총 148명과 그들의 어머니 148명이고, 6학년은 남학생 96명과 여학생 85명인 총 181명과 그들의 어머니 181명으로 전체 남학생 256명과 여학생 234명인 총 980명과 그들의 어머니가 연구대상자이다(표 1).

〈표 1〉 대상자들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

학년	성별		어머니
	남학생	여학생	
4학년	84(32.8)	77(32.9)	161(32.9)
5학년	76(29.7)	72(30.8)	148(30.2)
6학년	96(37.5)	85(36.3)	181(36.9)
계	256(100.0)	234(100.0)	490(100.0)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지식정도는 전체 14 문항으로 만점 14점에서 평균 8.02점을 나타냈고, 영역별로는 불소에 관한 문항의 평균은 만점 7점 중 3.53점이었고, 치주에 관한 문항의 평균은 만점 7점 중 4.48점으로 불소지식보다 치주지식에 관한 점수가 더 높았다(표 2).

〈표 2〉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점수

구분	항목수	점수 ¹⁾ (평균±표준편차)
불소 지식	7	3.53±1.31
치주질환 지식	7	4.48±1.63
계	14	8.02±2.36

1) 리커트 4점 척도: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학생의 구강보건신념을 영역별로 리커트 4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별 4점이 최대 점수로서 감수성은 총 7문항으로 평균 1.67점, 심각성은 총 10문항으로 평균 1.72점, 유익성은 총 9문항으로 평균 3.45점, 중요성은 총 7문항으로 평균 2.68점, 장애성은 총 4문항으로 평균 1.84점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신념의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은 2.30점이었다(표 3).

〈표 3〉 학생의 구강보건신념 점수

구분	항목수	점수 ¹⁾ (평균±표준편차)
감수성	7	1.67±0.49
심각성	0	1.72±0.51
유익성	9	3.45±0.48
중요성	7	2.68±0.40
장애성	4	1.84±0.63
계	37	2.30±0.26

1) 리커트 4점 척도: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으로서 하루 칫솔질 횟수는 평균 2.12회이었고,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평균 1.73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구강보건행동으로서 하루 칫솔질 횟수는 평균 2.66회이었고,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평균 1.28회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구강보건행동 점수

구분	점수 ¹⁾ (평균±표준편차)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	
하루 칫솔질 횟수	2.12±0.56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	1.73±1.37
학생의 구강보건행동	
하루 칫솔질 횟수	2.66±0.61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	1.28±1.34

1) 리커트 4점 척도: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를 살펴보면 연령과 취업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교육수준은 심각성에서 중졸이하 1.87점, 고졸 1.78점, 대졸이상 1.68점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심각성이 높았으며, 중요성에서는 중졸이하 2.96점, 고졸 2.70점, 대졸이상 2.66점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중요성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루 칫솔질 횟수는 중졸이하 1.50점, 고졸 2.06점, 대졸이상 2.16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1). 주관적 경제상태는 심각성에서 여유있음 1.71점, 보통 1.70점, 어려움 1.72점으로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심각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하루 칫솔질 횟수는 경제상태에서 여유있음 2.21점, 보통 2.11점, 어려움 1.93점으로 경제상태가 여유있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1)(표 5).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를 살펴보면 불소지식은 장애도에서 '저' 1.99점, '중' 1.81점, '고' 1.79점으로 지식이 낮을수록 장애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치주질환지식은 유익성에서 '저' 3.44점, '중' 3.37점, '고' 3.49점으로 지식이

높을수록 유익성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2회', '3회 이상' 일때 학생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각각 1.51회, 1.57회, 1.87회, 2.22회으로 어머

〈표 5〉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생의 구강건강행태

구분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중요성	장애도	치솔질 횟수	치과방문 횟수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연령							
39세 이하	1.64±0.48	1.67±0.48	3.44±0.49	2.68±0.36	1.80±0.62	2.09±0.61	1.67±1.36
40-44세	1.70±0.52	1.76±0.53	3.45±0.45	2.69±0.40	1.87±0.64	2.14±0.52	1.79±1.35
45세 이상	1.67±0.42	1.69±0.49	3.41±0.62	2.58±0.53	1.83±0.65	2.14±0.52	1.64±1.49
교육수준							
중졸이하	1.50±0.35	1.87±0.36	3.71±0.48	2.96±0.17	2.06±0.71	1.50±0.57**	1.75±1.25
고졸	1.72±0.53	1.78±0.54	3.42±0.50	2.70±0.33	1.80±0.63	2.06±0.55	1.52±1.36
대졸이상	1.65±0.48	1.68±0.50	3.46±0.47	2.66±0.43	1.85±0.64	2.16±0.55	1.83±1.37
취업유무							
있다	1.70±0.51	1.78±0.52	3.43±0.47	2.68±0.40	1.85±0.66	2.10±0.55	1.79±1.41
없다	1.63±0.48	1.65±0.49	3.47±0.50	2.67±0.39	1.82±0.60	2.15±0.56	1.65±1.31
주관적 경제상태							
여유있음	1.64±0.47	1.71±0.52*	3.46±0.50	2.70±0.41	1.78±0.67	2.21±0.57**	1.72±1.30
보통	1.68±0.50	1.70±0.50	3.45±0.48	2.67±0.40	1.85±0.62	2.11±0.55	1.73±1.37
어려움	1.72±0.49	1.95±0.49	3.35±0.41	2.63±0.32	1.85±0.64	1.93±0.51	1.74±1.59

* $p<0.05$ ** $p<0.01$

〈표 6〉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

구강보건지식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중요성	장애도	치솔질 횟수	치과방문 횟수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불소지식							
저	1.67±0.47	1.68±0.49	3.38±0.45	2.67±0.34	1.99±0.65*	2.21±0.63	1.72±1.23
중	1.69±0.52	1.74±0.51	3.44±0.48	2.67±0.42	1.81±0.62	2.09±0.54	1.80±1.42
고	1.64±0.45	1.70±0.54	3.53±0.51	2.70±0.38	1.79±0.63	2.13±0.53	1.54±1.35
치주질환지식							
저	1.72±0.52	1.70±0.50	3.44±0.38*	2.63±0.39	1.84±0.67	2.22±0.58	1.55±1.34
중	1.70±0.51	1.77±0.52	3.37±0.51	2.69±0.37	1.88±0.62	2.12±0.54	1.65±1.39
고	1.65±0.48	1.69±0.51	3.49±0.48	2.67±0.42	1.81±0.63	2.10±0.56	1.82±1.36

* $p<0.05$ ** $p<0.01$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하루 칫솔질 횟수가 '1회', '2회', '3회 이상' 일때 학생의 하루 칫솔질 횟수는 각각 1.42회, 1.95회, 2.24회으로 어머니의 칫솔질 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칫솔질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어머니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0회', '1회',

의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치과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치주지식은 학생들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

였으며, 유의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어머니의 불소지식은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장애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치주지식과 불소지식이 높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과 장애도는 낮았으나, 유의성은 높았다($p<0.05$)〈표 8〉.

나타냈다($p<0.01$). 즉 어머니의 하루 칫솔질 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하루 칫솔질 횟수와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높았으며($p<0.01$), 어머니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도 높았다($p<0.01$)〈표 9〉.

〈표 7〉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

구분	감수성	심각성	유익성	중요성	장애도	칫솔질 횟수	치과방문 횟수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칫솔질 횟수							
1회	1.69±0.57	1.85±0.70	3.42±0.43	2.71±0.50	2.03±0.72	1.42±0.53**	1.28±1.25
2회	1.69±0.48	1.68±0.51	3.44±0.50	2.64±0.41	1.86±0.63	1.95±0.42	1.60±1.38
3회 이상	1.66±0.50	1.74±0.51	3.45±0.47	2.69±0.39	1.82±0.63	2.24±0.59	1.81±1.36
치과방문 횟수							
0회	1.69±0.50	1.70±0.53	3.46±0.49	2.69±0.41	1.83±0.62	2.10±0.45	1.51±1.39**
1회	1.62±0.51	1.68±0.51	3.45±0.46	2.71±0.36	1.84±0.67	2.13±0.56	1.57±1.32
2회	1.68±0.41	1.72±0.47	3.51±0.46	2.69±0.36	1.84±0.60	2.20±0.59	1.87±1.15
3회 이상	1.70±0.52	1.81±0.50	3.36±0.51	2.59±0.44	1.87±0.64	2.08±0.69	2.22±1.44

* $p<0.05$ ** $p<0.01$

〈표 8〉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간의 상관성

학생의 구강보건행태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불소지식	치주지식
구강건강신념		
감수성	-0.018	-0.078
심각성	0.016	-0.092*
유익성	0.066	0.104*
중요성	0.021	0.019
장애성	-0.104*	-0.061
칫솔질 횟수	-0.067	-0.051
치과방문 횟수	-0.039	0.074

* $p<0.05$ ** $p<0.01$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하루 칫솔질 횟수는 학생의 하루 칫솔질 횟수($p<0.01$)와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p<0.05$), 어머니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학생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표 9〉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간의 상관성

학생의 구강보건행태	어머니의 칫솔질 횟수	어머니의 치과방문 횟수
구강건강신념		
감수성	0.001	0.024
심각성	0.043	0.085
유익성	0.008	-0.054
중요성	0.064	-0.076
장애성	-0.058	0.043
칫솔질 횟수	0.301**	-0.013
치과방문 횟수	0.100*	0.184**

* $p<0.05$ ** $p<0.01$

IV. 고 찰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 학교 학생의 구강보건행태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머니의 구강보건에 대

한 지식, 태도, 행동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모자구강보건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으로 불소에 관한 문항의 평균은 3.53점, 치주에 관한 문항의 평균은 4.48점이었고 전체 평균은 8.02점을 나타내어 불소지식보다 치주지식에 관한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는 김영희 등(2002)의 연구에서 불소지식 3.91점, 치주지식 4.91점, 전체평균 8.81점인 것에 비해 낮게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치주에 관한 점수가 불소지식보다 더 높은 것은 본 논문과 유사하다. 또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절사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소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어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불소에 관한 지식이 미흡하므로 좀 더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학생의 구강보건신념으로 감수성은 평균 1.67점, 심각성은 평균 1.72점, 유익성은 평균 3.45점, 중요성은 평균 2.68점, 장애성은 평균 1.84점으로 전체 평균은 2.30점이었으며, 이는 김영희 등(2002)의 연구에서 감수성 2.06점, 심각성 1.88점, 유익성 2.62점, 중요성 2.70점, 장애성 1.90점과 비교해 보면 본 논문의 유익성 평균만이 더 높았고, 그 이외에는 더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으로서 하루 칫솔질 횟수는 평균 2.12회이었으며, 이는 최규범(2003)의 연구에서 2.37회와 비슷하였고,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평균 1.73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구강보건행동으로서 하루 칫솔질 횟수는 평균 2.66회이었으며, 이는 최규범(2003)의 연구에서 2.04회와 비슷한 결과였고,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평균 1.28회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는 연령과 취업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은 높았으며, 중요성은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생의 칫솔질 횟수에 모친의 구강건강신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오윤배 등(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오윤배 등(1994)과 Poutanen et al(2005)의 연구에서 학생의 하루 칫솔질 횟수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사회적 수준과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

태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어머니의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하루 칫솔질 횟수는 어머니의 경제상태가 여유있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오윤배 등(1994)의 연구에서 세대소득이 아동의 심각성에 부(負)의 영향 즉 세대소득이 낮을수록 심각성이 높다는 것과 소득 중의 저축비율이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김영희 등(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가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각각 유익성, 감수성, 중요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학생의 하루 칫솔질 횟수와 연간 치과방문 횟수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점에서는 상반된 결과이다.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는 어머니의 불소지식이 낮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장애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어머니의 치주질환지식이 높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유익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김영희 등(2002)과 우승현(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수준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는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공만석 등(1994)의 연구에서 모친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유익성이 높은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Al-Omiri & Al-Wahadni(2006)는 부모의 구강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치과공포는 아이들의 치과의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포괄적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에서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은 학생의 구강건강신념과는 관련성이 없었으며, 이는 김영희 등(2002)과 공만석 등(1994)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하루 칫솔질 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칫솔질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오윤배 등(1994)과 공만석 등(1994)의 연구에서 모친의 칫솔질 횟수가 학생의 구강건강신념보다는 칫솔질횟수와 상관성이 높아 모친의 구강건강신념보다 모친의 실제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어머니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유의하게 높았

는데, 이는 공만석 등(1994)의 연구에서 모친의 치과 의료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칫솔질 횟수가 많았다는 결과와 Orenuga & Sofola (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초등학생의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서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또한 어머니의 구강건강관련 정보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매체를 통해 인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학생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모친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실시를 활성화시키고, 모친의 구강보건지식이나 태도 못지 않게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치주지식이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 유익성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불소지식은 학생의 구강건강신념중 장애도와 관련성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치주지식과 불소지식이 높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과 장애도는 낮았고, 유익성은 높았다. 이는 김영희 등(2002)의 연구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되지만 공만석 등(1994)의 연구에서 모친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유익성이 높은 것과는 유사하다.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어머니의 하루 칫솔질 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하루 칫솔질 횟수와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높았다. 이는 김영희 등(2002)의 연구결과와 공만석 등(1994)의 연구에서 모친의 칫솔질 횟수는 아동의 구강건강신념 중 감수성과 심각성, 칫솔질 횟수와 관련이 있는 것과 모친의 치과의료이용횟수는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 학생의 칫솔질 횟수와 관련이 있는 것과는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지식, 행동과 학생의 구강보건행태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S초등학교 한 곳을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한 후 임의로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

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개별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한 설문지 980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은 만점 14점에서 평균 8.02을 나타냈고, 학생의 구강보건신념은 만점 4점에서 평균 2.30점이었다.
2. 어머니의 하루 칫솔질 횟수는 평균 2.12회이며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평균 1.73회로 나타났고, 학생의 하루 칫솔질 횟수는 평균 2.66회이며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평균 1.28회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행태차이는 교육수준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은 유의하게 높았으나 중요성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관적 경제상태에서는 어머니의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은 유의하게 높았으나 학생의 구강건강행동 중 하루 칫솔질 횟수는 유의하게 낮았다.
4.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은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에서 심각성, 장애도, 유익성과 관련성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과 장애도는 낮았으나 유익성은 높았다.
5. 어머니의 하루 칫솔질 횟수와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학생의 구강보건행동 중 하루 칫솔질 횟수와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와 관련성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칫솔질 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칫솔질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어머니의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과 같이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은 자녀의 구강보건행동보다는 구강건강신념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은 자녀의 구강건강신념보다는 구강보건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중 경제상태, 학력,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심각성과 장애도는 높았으나 중요성 및 유익성과 구강보건행동은 낮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구강건강신념 중

유익성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도 높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은 자녀의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생의 바람직한 구강보건행태를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모자구강보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건강신념이 실천적인 구강보건행동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강복수 외 60인 (1996).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627-629, 서울: 계축문화사.
2. 공만석, 이흥수, 김수남 (1994). 모친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과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1), 84-94.
3. 김숙진, 안숙희, 김영혜, 정은순 (2004). 부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과 구강건강상태간의 관계. 보건교육 · 건강증진학회지, 21(1), 69-84.
4. 김영희, 송근배, 이성국 (2002).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과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행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2), 83-92.
5. 류경, 정성화, 김지영, 최연희, 송근배 (2004).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과 지식이 자녀의 우식유치실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8(1), 105-115.
6. 문창진 (1992). 보건의료사회학. 118-119, 서울: 신광출판사.
7. 박득희, 이광희 (1994). 어머니의 건강신념이 아동의 건강신념과 치과의료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1(1), 335-349.
8. 심선주,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2003). 모친구강보건지식이 유치우식증의 발생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7(3), 415-434.
9. 오윤배, 이흥수, 김수남 (1994). 모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구강건강신념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8(1), 10-11.
10. 우승현 (2003).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2, 서울.
11. 이난희, 박인혜 (2000). 또래집단의 사회적 강화가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3(1), 117-129.
12. 최규범 (2003). 부모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이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4, 서울.
13. 최순례, 유영아, 조민정, 송근배 (2004). 학교구강보건사업이 초등학교 아동들의 유치 및 영구치 우식실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7(2), 11-22.
14. 최연희, 서일, 권호근, 지선하 (1999).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동과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3(1), 45-61.
15. Rajab, L. D., Petersen, P. E., Bakaeen, G., & Hamdan, M. A. (2002). Oral health behaviour of schoolchildren and parents in Jordan. *Int J Paediatr Dent*, 12(3), 168-176.
16. Al-Omiri, M. K., & AL-Wahadni, A. M. (2006). Oral health attitudes,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school children in North Jordan. *J Dent Educ*, 70(2), 179-87.
17. Orenuga, O. O., & Sofola, O. O. (2005). A survey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of antenatal mothers in Lagos, Nigeria about the primary teeth. *Afr J Med Med Sci*, 34(3), 285-291.
18. Poutanen, R., Lahti, S., & Hausen, H. (2005). Oral health-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mong 11 to 12-year-old finnish schoolchildren with different oral health behaviors. *Acta Odontol Scand*, 63(1), 10-16.